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8월 3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3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8. 30. (화)	담당부서	창조행정담당관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 (044-203-5530)	담 당 자	주미나 사무관(044-203-5537)

산업부,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최

- '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중간점검 및 '15년 우수사례 공유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주형환)는 8. 30(화), 정만기 1차관 주재로 **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**를 **개최**하여 산업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의 **'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을 점검**하고, **'15년 우수사례**를 **공유했다.**

< 회의 개요 >

○ 일시 및 장소 : 2016. 8. 30(화) 14:00~15:00,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(11층)

○ 참석자 : 산업부 1차관, 창조행정담당관,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 20여명

* 12개 공공기관: 발전5개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광물자원공사

□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*에서, 산업부는 '14.12월부터 **소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본격 추진해왔다.**

* "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"('14.2월, 대통령, 경제혁신3개년 계획)

○ 각 공공기관은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, 구조화되고 계량화된 **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.**

○ 생산성 향상의 계량적 지표로 **생산성 기여액*** 개념을 도입하였고, 산하 **17개 공공기관에서 '15~'17년간 총 3.1조원의 생산성 기여액 창출**을 목표로 설정했다.

* 외생변수 효과를 제거하고, 기관의 자율적 생산성 향상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**비용절감액 및 매출창출액의 합**

<구조화·계량화된 추진체계>

분야	⇒	추진과제	⇒	성과지표·목표	⇒	생산성 기여액
자본 노동 지식		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 과제 도출		과제의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		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생산성 기여액 도출

□ '15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, **우수기관**으로 **한국남부발전, 한국남동발전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서부발전 등 4개 기관**이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.

* 기타공공기관 경평에서 생산성 분야를 평가받는 5개 기관 제외, **12개 기관 평균**이 **72.4점**이었고, **생산액 기여도**는 **13,279억 원**으로 **'15년 목표(9,111억원) 달성대비 46% 초과 달성**

○ 대부분의 기관은 자재관리와 설비 효율성 향상 등 **자본생산성 분야 실적이 우수하나,** 신기술 적용 등 **지식생산성 분야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.**

<수상기관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>

◈ 한국남부발전 : 동일기종 발전사업자간 유·무형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

- 예비품 공동운영, 압축기 공동구매, 구매 실례가 공개, 국내 기술교류회 개최,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자원공유를 통해 비용 절감
- 자원공유를 통해 발전원가 105억원 절감

◈ 한국남동발전 : 빅데이터 기반 연료 조달시스템으로 발전연료비 절감

- 연료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상품화 기반 구축,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 고도화, 유연 입찰제도 도입, 전문가 정보채널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
- 시황대비 5.6%(1,246억원) 절감, 단위 열량(Gcal)당 468원 저가 구매

◈ 한국전력공사 :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 저장장치(F/R ESS) 활용 전력구입비 절감

-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(F/R ESS)가 주파수 조정기능을 함으로써 석탄발전소 100% 가동이 가능해지고 석탄발전소 5% 발전대기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전력구입비용의 절감
- '15.7~12월간 전력구입비 43억원 절감, '17년까지 총용량 500MW 에너지저장장치(ESS) 구축시 연간 생산성 기여액 1,200억 발생

◈ 한국서부발전 : 발전부산물 생산관리-판매시스템 혁신으로 자원순환사업 선도

- 원료-판매 품질관리 강화, 소규모 판매기업 진입장벽 완화, 재활용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도 도입, 부산물 사용량 증대기술 개발 통해 매출 향상
- '15년 부산물 매출 229억 원, 영업이익 201억 원 달성

○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한국남부발전은 **동일기종 발전사업자간 유·무형 자원공유**를 통해 **105억원을 절감**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다른 발전 4개사까지 확대할 경우, 420억 원을 절감이 기대된다.

□ 한편, '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점검 결과, 12개 기관은 2분기까지 노동·자본·지식생산성 3대 분야 과제 추진을 통해 5,333억 원 생산성 기여액을 창출해 **'16년 목표 10,503억 원 대비 50%**를 **달성했다.**

○ 대부분의 기관이 하반기에도 주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'16년 연말까지는 '16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정만기 제1차관은 "공공기관 부채감축, 방만경영 해소가 양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, **생산성 향상**은 **질적 체질개선을 포함하는 혁신**을 의미"한다며, "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한 **생산성 향상 우수 사례를 참고해** 각 기관에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**공공기관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"고 당부했다.**

※ 붙임

참고: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요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주미나 사무관(044-203-55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제1회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요**

1. 회의 개요

○ (추진배경) '15년도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실적평가 우수기관 격려 및 노하우 전파를 통한 **공공기관 혁신** 도모

<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실적 평가 도입 의의>

◇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국민의 불신 증가

◇ 이를 해결하기 위한 "공공기관 부채감축·방만경영 해소는 양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, **생산성 향상**은 **질적 체질개선을 포함한 혁신**을 의미"(공공기관장 워크숍, '14.3월)

○ (일시·장소) 2016. 8. 30(화) 14:00~15:00 / 무보 11층 대회의실

○ (참석대상) 산업부 1차관, 창조행정담당관,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

* 발전5개사 및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광물자원공사

○ (주요내용)

- '15년 실적 우수기관 **표창** 및 **우수사례 공유**
- '16년 **생산성 향상계획 추진상황 보고**

2.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진행내용	비 고
14:00~14:05(5')	○ 모두말씀	차관
14:05~14:15(10')	○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경과 보고	창조행정 담당관
14:15~14:20(5')	○ 표창장 수여	차관
14:20~14:40(20')	○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 - 한국남부발전, 한국남동발전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서부발전	수상기관
14:40~14:55(15')	○ '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발표	8개 기관
14:55~15:00(5')	○ 마무리말씀	차관